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 2002 서울성경대학 · 경로대학 · 주부대학 개강

### 2002년 4월 일정별로 개강

우리교회는 매년 이 지역의 이웃주민과 성도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 '열린 프로그램'으로 개설하고 있는 서울성경대학과 경로대학 주부대학의 2002년도 전반기 강의 일정 이 당회를 통과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확정되었다.

수강료는 경로대학과 주부대학이 10,000 원이고 서울성경대학은 과목당 10,000 원이다.교회는 성도들이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평생교육의 귀한 시간에 꼭 참여하기를 기도한다.

† 제11학기 서울성경대학

기간: 2002.4.1~6.8(10주)

강좌	요일/시간	강사	강의실
사도행전	월 오전10:30	이태훈 전도사	602호
창세기 I	화 오전6:00	고경선 목사	602호
출애굽기	목 오후7:30	윤영국 목사	602호
누가복음	목 오전6:00	김운호 목사	602호
음악교실	화 오후7:30	허희철 집사 · 이연숙 권사	502호
전도학교	목 오전10:00	주제별 진행	601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10~4:30	주제별 진행	603호
교구일꾼 양성반(L.T.C)	주일 오후 3:10~4:30	주제별 진행	502호

† 제4학기 살롬 경로대학

일시: 2002.4.4(목)~ 6.13(목) 10:30~14:30 (중식제균)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101호)

일 자	강의제목	강사
4/4	신앙과 노후생활	고경선 목사
4/11	자녀를 위한 신앙생활	이성득 목사
4/18	기독교 종말론	김영한 박사
4/25	한국 기독교회사	이만열 박사
5/2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김상철 박사
5/9	외국의 노인복지 정책	왕경래 교수
5/16	별침치료	최옥량 교장
5/23	노인 건강체조	원성원 선생
5/30	기독교 유적답사	야외수업
6/13	나의 하나님(간증)	백영희 권사

※특별활동: 컴퓨터 교실, 에어로빅 교실, 원예 교실, 성경 교실

† 제3학기 서울주부대학

일시: 2002.4.2(화)~ 6.4(화) 10:15~14:15 (중식제균)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101호)

일 자	강의제목	강사
4/2	신앙과 가정생활	최만자 원장
4/9	여성의 봄철 피부관리	한은주 강사
4/16	자녀교육-생각 따라잡기	최지혜 전도사
4/23	여성 비만관리의 허와 실	이운진 박사
4/30	부부의 대화와 가족대화 증진	김광신 장로
5/7	야외수련회	야외수련회
5/14	청지기적 재테크	박형수 집사
5/21	기독교적 여가생활	김선미 선생
5/28	생각과 마음 글 담기	윤영남 집사
6/4	가족 영양관리	나미용 집사

※특별활동: 영어외화(Jo Dodson), 컴퓨터 교실, 포장 및 꽃꽂이(김성실), 종이접기(김준자), 서울교회 특선요리가 요리탐구, 기독교 영화감상(멀티미디어 팀)

## 에바다부 지도목사 청빙



우리교회는 청각장애인의 모임인 에바다부를 지도할 지도 교역자 서명철 목사를 청빙하기로 했다.

서명철 목사는 서울강남노회 총무로 재직하고 있다.

장신대 신대원(M.Div)을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 및 맥코믹신학대학원 공동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수하였다.

▶서명철 목사

## 강남노회 산하 당회원 연석회의

### 3월9일(토) 오후5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서울 강남노회(노회장 이종윤 목사)는 부활주일(3월31일) 새벽예배와 6월6일 서울 강남노회 연합체육대회를 서울 강남노회 소속 교회들이 연합하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드리게 됨에 따라 이를 준비하기 위한 강남노회 산하 당회원 연석회의 및 친교의 시간을 오는 3월9일(토) 우리교회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갖기로 했다.

## 멀티미디어 팀 대원 모집

멀티미디어 팀(팀장 조철기 집사)은 예배시간의 멀티미디어 봉사와 홈페이지를 관리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그래픽등에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 2월 새가족 환영회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2월중 등록한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의 시간을 갖는다. 2월중 등록한 새가족과 교사들은 모두 참석하여 함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도록 한다.

### 3월중 행사계획

- 3.3 (주) 새가족 환영회(2월중 등록한 가정) 교육위원회
- 3.9 (토) 강남노회 연합당회
- 3.10(주) 전도위원회
- 3.17(주) 교구위원회
- 3.24(주) 찬양위원회
- 3.28(목) 강남노회 여전도회 총회
- 3.31(주) 강남노회 부활절 연합예배(05:30 잠실 실내체육관) 여전도회 헌신예배



이사야 강해

# 회개의 촉구

(이사야 58장 1 - 9절)



이종운 목사

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외형적 의식을 잘 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인을 무시하고 힘없는 자를 천대하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경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대한 책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된 종교의식은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격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사람을 천대하는 종교 행위는 그 의식을 바로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바로 서겠다고 약속은 하면서 실제로는 여호와와 예배의식을 형식적으로만 하고 내용을 결여되어 있는데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 1. 선지자로 하여금 유대의 죄를 책망하라 하심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1절).

'외치라'는 히브리어로 '힘차게 부르짖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르칠 말씀이 너무 중요하므로 목구멍에서부터 힘차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백성의 허물을 지적해 주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힘차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르침이 결여된 세대로 외치는 자가 없는 때입니다.

선지자는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 외쳤습니다. 나팔은 경고의 신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렸습니

다. 사람들은 자기 약점이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외치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허물을 회개하도록 하면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자는 "나더러 착하다고 하는 자는 도적이요 나의 허물을 말해주는 자는 나의 선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재촉하는 여호와와 종의 음성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 2. 책망의 내용(2절)

종교를 외식적으로만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외식자들은 외부적 경건에만 주력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2절).

유대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종교 생활에 즐거움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아직도 육신적인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목적인 것을 이루는 자기 성취감에 도취되어 일을 즐겼습니다. 그들이 한 봉사는 예배의식이나 음악에 대한 심미학적 즐거움일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온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혼자서도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이 인정해 주

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진주가 바다 속에 숨겨져 있으나 그 빛은 하늘빛 같이 아름답고 사자는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있다고 합니다. 위선과 외식이 많은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바라보며 진리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 3. 외식하는 종교인의 특징(3-4절)

외식하는 종교인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①외식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공로와 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지 아니하시나이까"(3절).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이 금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신앙적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숨어서 일을 해도 다 보고계십니다.

②저들은 종교적 규례를 외식으로 지킵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3절).

금식하는 목적은 육체의 쾌락을 금하며 심령을 괴롭게 하여(레 16:29, 31)기도하기 위함인데 저들은 금식하면서도 오락을 취하니 겉으로는 금식하고 속으로는 육체의 쾌락을 취하였습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아랍의 모슬렘교도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해가 있을 때에는 금식을 하는데 해가 지면 소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따라 외식을 한 것일 뿐 진정한 금식이 아닙니다.

③종교적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증진시키기 목적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금식을 하면서 남들을 온갖 수고로운 노동을 시키며 제압하였습니다(3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4절).

또한 그들은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남들과는 다투며 싸웁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이웃과 화목 하는 일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자의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중세기의 어떤 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백성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교는 핍박을 받을지언정 남을 핍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 4.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외부적 의식으로만 종교 의무를 다한 것으로 안 유대인

들은 남들에게는 모든 부도덕한 일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런 자의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5절).

저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외형적 의식을 잘 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인을 무시하고 힘없는 자를 천대하는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공경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대한 책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된 종교의식은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격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사람을 천대하는 종교 행위는 그 의식을 바로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며 행위가 따르는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압제 하에 있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6절), 먹지 못하고 헐벗은 자들을 동정하며 구제가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7절),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동포를 도와줄 기회를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7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바른 신학 위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8절).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빛과 같이 광명한 장래가 도래할 것이고 죄로 인해 받은 상처가 급속히 치료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이들 앞에서 인도하시며 그들 뒤에서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명애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9-10절).

회개하고 의를 소유한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외식하는 이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제 아래 있는 자를 놓아주어야 하며 멸시하지 말아야 하고 허망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린 자를 동정하고 괴로워 하는 자를 위로하며 그들을 만족하게 해야 합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살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02년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표정



### 김희선(유년부)

나는 센터학습 중에서 지옥훈련과 스피드 게임, 단어 맞추기 게임이 제일 재미있었다. 2일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란 재미있고 좋은 곳이란 것을 느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다. 나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지만 할머니께서 반대하셔서 너무 아쉽다.

(여러분께서 이 어린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 김소연(초등부)

드디어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

나는 초등부에 올라오고 나서 처음인 성경학교이기에 참 기대가 되었다. 집이 부친인 나는 9시 30분에 시작하는 찬양대 연습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전철을 타고 교회로 가려고 했지만 파업으로 전철은 오지 않았고 역에서 30분이 지났어도 한번 온 전철은 사람이 너무 많아 나 같이 조그만 아이는 탈수도 없었다. 이제 찬양 연습도 못하고 개회예배도 못 드릴 것 같아 나는 초조했으나 아빠가 역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셨다. 하지만 9시 50분쯤 도착 할 수 있어서 조금 늦기는 하였지만 연습도 하고 개회예배 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목사님의 설교와 성경공부시간을 통해 알려 주셨다.

'인터넷 바로 알기' 시간에 인터넷으로 인해 우리가 사탄에게 꼬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 질 수 있으니 인터넷을 바로 쓰자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 외에 '성 바로 알기' 시간 '전도 바로 알기' 시간을 가지면서 성이 무엇인지,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배웠다. 또 제일 재미있었던 '공동체 훈련'은 우리가 한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 최혜순 권사(유아부 교사)

지난 2월 25일에 "성령이여 하나가 되어요" 라는 주제로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가졌다. 비록 하루동안이지만 선생님과 부모들과 어린 애기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색종이를 접어 날아가는 새를 만들고 시청각 교육인 그림 성경동화와 인형극 - 스테판 집사님의 순교적인 전도극은 주일날 할 수 없었던 특별한 프로그램이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서 기도 드릴때는 세상의 그 어떤 모습 이 이보다 더 아름다울까...

모든 수련회 시간이 다 끝나고 집에 가야하는 시간인데도 가지 않으려는 지후, 안 가려고 떼쓰다 엄마 품에 안겨 가는 하영이, 너무나 예쁘고 귀여운 민지, 열심히 돌아다니는 수인이, 기저귀 갈아줄 때 뒤집고 싶어 그냥 있지 못하

는 영현이, 유아부 대장인 요한이, 유아부 어린이 모두가 사랑스럽다.

지금은 엄마 품에 안겨오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서 목사님, 선교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도 있을 것이다.

유아부 교사들은 권사님도 계시고 고등부에 소속되어 있는 젊은 선생님도 계신다. 금년 유아부 목표는 어린이 300명, 교사 100명으로 정하여 기도 드리고 있다. 유아부 지도 조대영 전도사님은 오직 성경말씀만 그림에 담아 시청각으로 전하고 계신다. 이때는 아이들 눈망울이 더욱 빛나고 있다. 자상하신 이관규 장로님, 울던 아이도 잘 달래시는 은사를 가지신 김시환 부감 집사님, 굶은일 모두 맡아 모범을 보이시는 전용순 부감 권사님, 우리 서울교회의 나이와 거의 비슷하도록 유아부에 봉사하시는 이남복 권사님, 김계순 권사님, 나옥녀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데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사의 자리를 지켜주시니 존경하는 마음에 고개가 숙여진다.

주어! 참으로 교회에서 자라는 천진난만한 이 아이들이 세상 때가 묻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인도하소서.

한 교실에서 새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속을 터놓고 애길 나누지 못하던 제 2팀 성도들이 식탁을 마주 하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며 눈물도 흘리는 은혜로운 환영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 원입교인으로 등록하여 교회가 서먹서먹한 새가족들이 나는 저마다의 간증들을 요약해 본다.

**김동두 성도:** 저의 신앙은 어릴 적부터 가졌던 우주의 창조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랜 기간 절에 다녔는데 이 의문은 명쾌히 설명되지 못했고 젊은 시절 많은 방황을 통해서도 도무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70의 나이에 서울교회 7장로님 부부의 간청에 따라 한번 서울교회에 왔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 그 날로 등록을 했죠. 성경 말씀의 창조원리를 통해 기나긴 의문에 종지부를 찍고 지난주에는 아내와 함께 학습도 받았습니니다.

**박두선 성도:** 그동안 몇 군데 교회를 다녔고 마음이 선뜻 내키질 않았는데 남편과 함께 서울교회를 오는 첫날 너무 마음에 들어 등록을 했고 얼마 전 구정 연휴 때 성경통독 사경회에 참여하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니다.

상계동에서 다니는 것이 힘들지만 0장로님 말씀대로 이제는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고 70에 들어섰지만 예배에 열심히 참가하기 위해 의사 선생님만 허락하면 10년 간 안했던 운전 면허를 연수받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이명수 성도:** 아이들만 서울교회에 보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엄마는 왜 교회에 안 가느냐고 해서 무심코 곧 갈 거라고 애길 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0집사님을 만나 교회에 나오게 됐고 다락방 예배도 나가게 됐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며 요즘은 엄마도 집사가 되겠네요 하며 신이 나 있어요. 아직 잘 모르지만 열심히 다니며 믿음을 쌓겠습니다.

**김명자 성도:** 가끔 나가던 교회가 이사를 가서 교회를 쉬고 있었는데 결국 일 년 만에 등록교인이 됐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처음 듣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마음

### 새가족부 2팀 토크 박스 기적의 연속입니다



에 와 당고 찬송을 부르는데 저도 몰래 눈물이 많이 났어요. 사실은 저의 남편(정락신 성도)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11년 간 투병 중이어서 바깥출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열심히 믿고 기도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6월 25일 사법시험 2차를 앞둔 큰아들(정도희 군)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양복 성도:** 어머니가 암으로 편찮으신 데 다니던 교회 가사를 가 많은 가까운 교회들을 방황하던 중 서울교회 가 완공되어 새벽기도를 다니며 흥쾌작전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기도하는 법도 배웠어요. 어렵게 결심하고 교회에 등록하여 새가족부에서 전도사님의 가르침과 교사들의 사랑이 큰 은혜가 되고 있어요. 서울교회 교인들은 너무 행복한 분들입니다. 불임의 딸도 병원치료를 포기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믿음 생활하는 중 하나님께서 임신의 기쁜 소식도 최근에 주셨어요. 서울교회를 통해 안 믿는은 마이파트 주민들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송미자 성도:** 서울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연세대를 나왔으나 불교에 심취해 있던 남편이 제가 새벽기도를 나가면서부터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 기도한 일들이 응답되어져서 이사 후 성당이나 교회 중 택일을 하기로 합

의하고 주위의 성당과 교회들의 자료를 모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서울교회로 결정하고 마음이 흔들릴까봐 새벽기도 시간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막상 제가 등록했다고 하니 남편이 망설이는 바람에 조바심이 났는데 내일 남편(안길환 님)도 등록하기로 약속했어요. (만세! 2/24 등록하셨습니다.)

**정원조 성도:** 그 동안 건디기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친구가 성경을 읽어보라고 해서 읽기 시작했고 이모인 0권사님의 인도로 서울교회 등록하게 됐습니니다. 매주 설교 말씀이 저의 마음 판에 새겨지고 그 동안 나 중심의 집착에 빠져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남편과 재결합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남편은 차에 붙이고 다니던 염주를 떼어 주면서 제 맘대로 처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도 학교 다닐 때 교목의 기도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을 떠난 후 많은 시련이 시작되었다는 고백을 들려주더라고요. 저의 남편(권문수님) 내일 등록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누군가에게 크게 자랑을 해야겠다고 버리고 있다가 오늘 만찬에 초대받고 그만 제 상처를 다 털어 놓았네요. 제가 변한 것이 기적이고, 남편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도 기적이며 아들이 밝게 자라는 것도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평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이와 제게 돌아와 준 남편이 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2/24 권문수님도 아들 태현이와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의 현장을 듣고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신 한 분 한 분의 맑은 얼굴들이 눈물로 얼룩져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기도했다. '주님, 어렵게 서울교회의 문턱을 넘은 이 분들을 주님 섬기듯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소서.'

### 동정

- 이종윤 목사: 8일(금) 비전2020운동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또한 강남노회 임원회도 소집한다. 9일(토)에는 서울 강남지역 당회원을 소집한다.
- 김세재장로 - 이운진권사는 2월21일 ch42' 믿음의 가족'에 출연하였다.
- 이사: 10교구 김경현 집사, 02)3013-4059  
11교구: 이양철 집사, 김미향 집사, 02)417-6533)  
10교구 이옥현 권사 02)3013-5049
- 개업: 정옥자 집사(1교구) 완도식당 02)517-8607

☞ 금주의 식사제공: 박철훈 장로/이경의 권사 가정 (은혜 중에 수술을 마치고 그 동안 기도해주신 성도들께 감사하며)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인터넷 기독교사이트의 문제점 (II)

가상의 공간, 인터넷에 세워진 많은 기독교사이트와 가상교회들, 한동안 3000여개를 육박했던 기독교사이트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기독교 전도사역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지 또한 지금까지가 표출되어진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부 주(註)

#### 2. 상업화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즉 사이트를 개설한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각종 배너 광고와 물품의 판매등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사이트의 경우, 확보할 수 있는 회원의 수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포털 사이트들과 같은 '전방위적 배너광고' 역시 쉽지가 않다. 가장 먼저 생긴 H 사이트는 현재까지 확보하고 있는 회원이 30여만명이라

고는 하지만, 이는 daum이나 yahoo, 혹은 lycos 같은 일반 사이트들의 회원 수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수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수익을 얻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게 오늘 기독교 사이트들이 처한 현실이다.

기독교서적, 기독교 용품등이 한 곳에 모여있으면 성도들의 구매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G사이트는 기독교 서적을 사이버 서점 형태로 출발한 경우로 신자들에게 기독교서적, 음반등을 손쉽게 구매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이트들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E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는 기독교 포털 메인 페이지보다는 기존 대형 포털 사이트인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E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는 잡다한 상품들(핸드폰, 화장품, 액자, 카세트플레이어, 악기...)에 대한 소개로 가득 차 있어 사이트 개설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편집부 (유은경)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1 학기목회자세미나 · 성경대학 · 경로대학 · 주부대학을 위하여
2. 사순절 절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